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2호 (2024.06.21)

- 이 슈
(경기) 2024년 상반기 국내 및
인천시 수출 현황 점검
-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2호 (2024.06.21)

Cotents

I. 이슈

(경기) 2024년 상반기 국내 및 인천시 수출 현황 점검 1

II.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산업) 정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11

(교육) 교육부, '25년도 대학 입학전형 확정에 따른 맞춤형 입시정보 제공 ... 11

(금융)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과거 이용내역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12

(주거)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시행 12

(교육) '지능형 반도체' 분야 BK21 교육연구단에 3개교 추가 선정 13

(주거) 정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규제 개선 13

(산업)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사업 2차 공모 접수 14

(산업) 하반기부터 수출기업의 물류 운항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추진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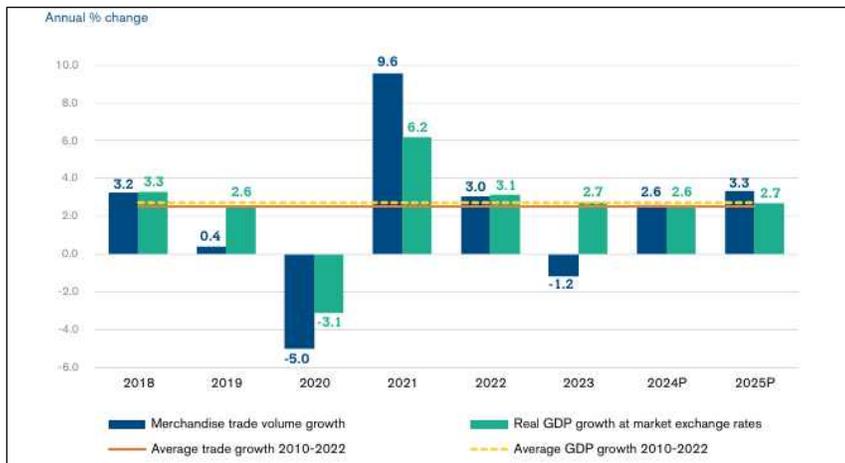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경기 > 2024년 상반기 국내 및 인천시 수출 현황 점검



#글로벌 무역 회복세 #수출 증가 #대의 불안정

- 2023년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에너지 가격의 여파로 위축되었던 국제 무역 경기는 2024년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나, 물류비용 상승 및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이 국제 무역 회복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¹⁾
 - 지난해 선진국 수요 감소와 동아시아·남아메리카 지역의 무역 약화 등으로 인해 부진했던 국제 무역은 2024년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소비 수요 증대 △서비스무역 활성화 등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 낙관적일 전망
 - 다만, △지정학적 긴장 지속 △세계 경제 파편화 등으로 무역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어, 국제 무역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공존
 -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물류비용 상승 및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해 각국의 무역 상황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긴장 상황의 지속이 차후 에너지 및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또한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한 △중국 저가 수출 견제 △환경 관련 산업정책 △공급망 재편 논의 △자국 산업 보조금 논의 등은 세계 경제를 파편화시켜 글로벌 무역의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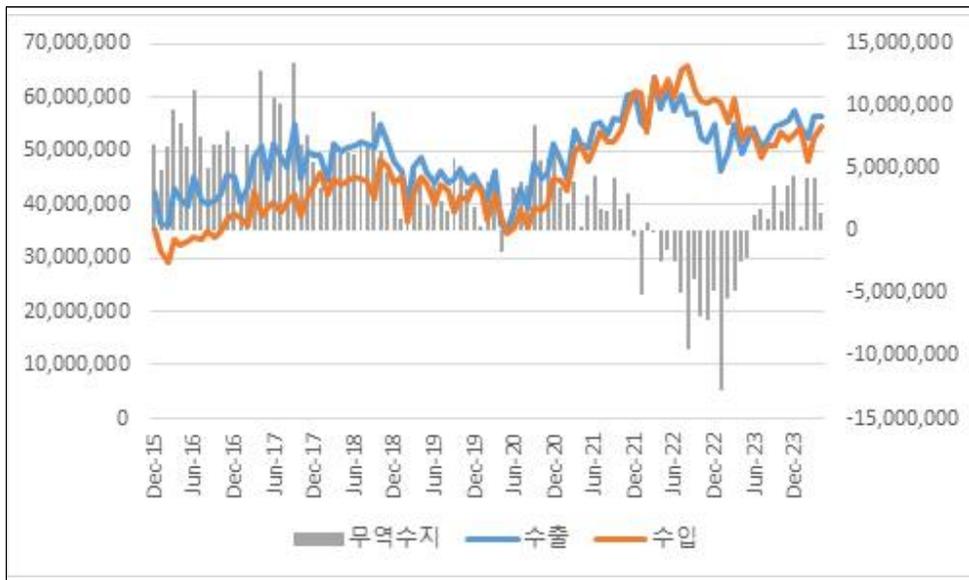


* 자료 : WTO(2024.04)

[그림 1] 연도별 국제 상품무역 규모 및 실질 GDP 증가율 전망(2015-2025)

1) UNCTAD(2024.03), WTO(2024.04) 참조 및 재구성.
 2) WTO(2024.04)는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무역 규모가 전년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무역 수출이 연속 7개월째 전년동월대비 상승하며 수출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액은 '22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며 내수경기 둔화 우려
- 2024년 1월~4월 수출액 누계는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한 약 21,997천만 달러,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한 약 20,944천만 달러를 기록
 - 원유·석유제품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가격 하락,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비재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수입액은 감소한 반면,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IT 품목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며 양호한 흐름
 - 지난 22년 8월 정점을 기록한 수입액이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수출액의 회복세가 꾸준히 유지됨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41.6% 증가한 1,054천만 달러 수준
- 국내 10대 수출입 품목³⁾을 기준으로 △반도체(52.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47.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3.3%) 부문에서는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정밀화학원료(-40.5%) △무선통신기기(-5.2%) △합성수지(-1.8%) 부문은 감소
- 우리나라의 7대 수출국⁴⁾ 중에서는 △중국(-430.9천만 달러) △일본 (-649.2천만 달러) △대만(-142.9천만 달러)에 대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홍콩 △대만 △베트남을 제외한 4개 국가에서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증가 및 수입액 감소 기록
 - 특히 홍콩의 경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9.0%, 수입이 72.8%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1,140.6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미국(1,865.0천만 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4.6.14 기준)

* 주 : 동 그래프는 1,000\$ 단위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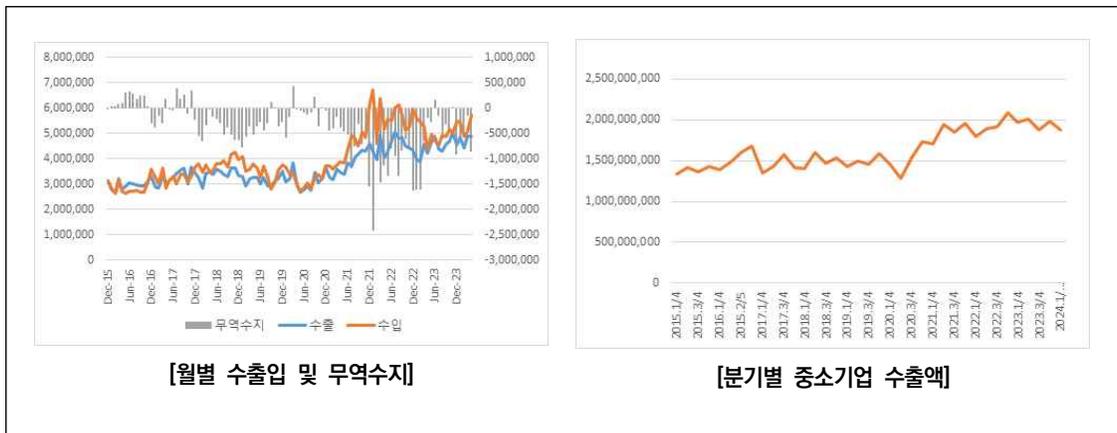
[그림 2] 월별 무역 수출입 추이(2015.12~2024.04)

3) 2024년 1월~4월 수출 누계액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은 ①반도체 ②자동차 ③석유제품 ④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⑤합성수지 ⑥자동차부품 ⑦철강관 ⑧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⑨무선통신기기 ⑩정밀화학원료 순.

4) 2024년 1월~4월 기준 우리나라 7대 수출 대상국은 ①미국 ②중국 ③베트남 ④홍콩 ⑤일본 ⑥대만 ⑦싱가포르 순.

2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 인천시 수출액 역시 전국 추이와 마찬가지로 2023년 10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액의 경우 지난 '23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전년동월비 상승 반전
 - 2024년 1월~4월 인천시 수출 누계액은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한 1,900천만 달러, 수입액은 2.1% 증가한 약 2,114천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며, 누계액 기준 수입액이 감소한 전국 추이와 차이
 - 2024년 4월 기준 인천시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15.5%, 수입액은 30.2%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출입 경기가 개선되는 추세
 - 반면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액의 경우 2023년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1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4.9%, 전기대비 5.6% 감소한 187,845천만 달러를 기록
 - 전국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23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인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액이 다소 감소하며 보합세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중소기업 수출동향'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월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그래프는 1,000\$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좌측은 수출입액, 우측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작성
 2 :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액 그래프는 \$ 단위로 작성

[그림 3] 인천 수출입 동향(2024.04)

- '24년 1월~4월 누계 기준 인천시의 주요 품목별·국가별 수출액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제품군과 對중국·對미국 수출 시장의 호조가 수출액 증가에 기여
 - 인천의 10대 주요 수출 품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반도체,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등 상위 3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약 49.0%를 차지하여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⁵⁾
 - 10대 수출 품목의 무역수지 누계액은 약 587천만 달러로, 반도체 및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8개 품목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건설광산기계(-24.1%) 및 자동차부품(-21.6%)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의 수출 상위 3개 품목(시점별 항목 동일)의 비중이 2023년 5월 누계액 기준 44.2%, 2023년 9월 누계액 기준 44.7%에서 2024년 4월 누계액 기준 49.0%로 상승.

수출 품목 비중이 높은 반도체(42.6%)와 농약 및 의약품(28.9%)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증가

- 10대 수출 품목의 현시비교우위(RCA) 분석 결과 △농약 및 의약품(6.10) △건설광산기계(3.02) △석유화학 중간원료(2.80) 등 8개 품목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확인⁶⁾되었으나, △자동차부품(0.55) △석유제품(0.33)의 경우 지난해보다 비교우위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⁷⁾
- 인천시 전체 수출액 중 약 46.9%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⁸⁾인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7개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
- 주요 수출국별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중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홍콩), 자동차(미국), 석유제품(일본) 등

[표 2] 인천 주요 품목별 무역 수출입 추이(1월~4월 누계)

(단위 : 천만\$, %)

구분	2023년					2024년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전체 품목	1,667.4	-3.3	2,071.0	-9.8	-403.6	1,900.4	14.0	2,114.0	2.1	-213.6
반도체(831)	364.4	-29.5	365.7	-27.1	-1.2	519.5	42.6	586.1	60.3	-66.6
자동차(741)	229.2	58.6	9.7	33.5	219.5	236.5	3.2	3.1	-68.4	233.5
농약 및 의약품 (226)	136.3	-5.5	42.5	23.1	93.9	175.7	28.9	52.2	22.9	123.5
철강판(613)	101.9	-20.7	24.0	22.3	77.9	95.2	-6.5	8.8	-63.6	86.5
무선통신기기 (812)	63.1	223.5	14.4	28.3	48.6	73.6	16.7	22.5	55.6	51.1
비누치약 및 화장품(227)	49.9	-15.8	0.4	-20.9	49.5	64.9	30.1	0.6	54.3	64.3
건설광산기계 (725)	69.8	27.8	7.5	0.1	62.4	53.0	-24.1	6.5	-13.2	46.5
석유제품(133)	54.6	-3.6	29.1	102.1	25.5	51.5	-5.8	31.8	9.1	19.7
석유화학 중간원료(212)	43.7	13.4	0.0	-5.3	43.7	46.5	6.5	0.0	47.7	46.5
자동차부품 (742)	47.0	-3.5	57.5	46.2	-10.6	36.8	-21.6	55.0	-4.4	-18.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4.06.14. 기준)

* 주1 : 수출입 품목의 구분은 MTI코드의 3자리 숫자를 이용

2 : 전체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2024년 4월 누계 수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대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년동기비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6) 현시비교우위(RCA) 분석이란 특정 국가(지역) 및 품목의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 단위로 했을 때는 $\frac{(\text{지역}/\text{품목 수출액})/(\text{지역 총 수출액})}{(\text{국가}/\text{품목 수출액})/(\text{국가 총 수출액})}$ 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값이 1 이상일 때 비교우위를 갖고, 1 미만이면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 인천 10대 수출품의 품목별 RCA는 △농약 및 의약품(6.10) △건설광산기계(3.02) △석유화학 중간원료(2.80) △비누치약 및 화장품(2.38) △무선통신기기(1.84) △철강판(1.62) △반도체(1.47) △자동차(1.13) △자동차부품(0.55) △석유제품(0.33) 순.
- 7) 2023년 5월 수출액 누계 기준 10대 품목의 RCA는 △농약 및 의약품(5.48) △건설광산기계(3.09) △석유화학 중간원료(2.60) △비누치약 및 화장품(2.24) △철강판(1.77) △반도체(1.69) △무선통신기기(1.52) △자동차(1.16) △자동차부품(0.72) △석유제품(0.40).
- 8)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23년 5월 누계액 기준 45.5%, 2023년 9월 누계액 기준 45.6%에서 2024년 4월 누계액 기준 46.9%로 상승.

4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표 3] 인천 주요 국가별 무역 수출입 추이(1월~4월 누계)

(단위 : 천만\$, %)

구분	2023년					2024년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중국	424.5	-24.3	279.7	1.7	144.8	508.3	19.7	282.1	0.9	226.1
미국	329.3	22.6	306.6	30.1	22.7	400.2	21.5	215.0	-29.9	185.2
베트남	108.6	-21.4	62.6	66.6	46.0	137.5	26.6	114.6	83.0	22.9
대만	64.8	3.0	176.1	-24.1	-111.3	92.2	42.2	304.9	73.1	-212.7
일본	64.5	12.0	130.6	-15.9	-66.0	68.4	6.0	134.4	3.0	-66.0
싱가포르	56.3	13.2	24.6	-41.7	31.8	65.1	15.7	36.3	47.7	28.9
홍콩	32.7	-30.5	11.1	0.3	21.6	50.1	53.5	51.5	365.8	- 1.4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4.06.14. 기준)

* 주 : 주요 수출 대상국은 2024년 4월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7대 수출 대상국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년동기비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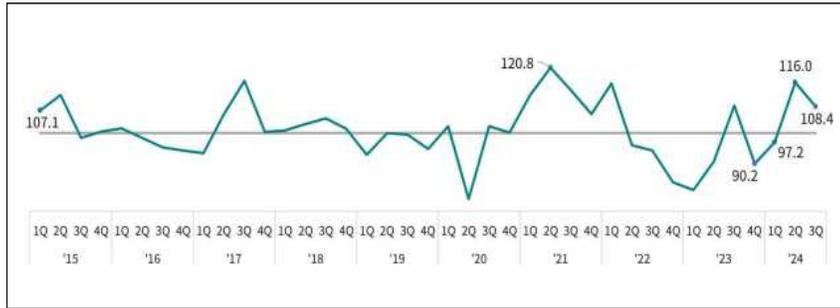
○ 2024년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수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회복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글로벌 교역 부진의 완화 및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의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당분간 수출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가 간 분쟁 및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국내 주요 수출품에 대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 개선세가 유지되어 2024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기대⁹⁾
- 다만 △글로벌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세계 경제 파편화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중국의 재고 저가 수출 확대 등 국내 수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실제 수출 경기 회복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전망¹⁰⁾
- 무역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전산업 수출경기전망지수는 108.4로, 수출기업들은 대체로 지난 분기에 이어 수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¹¹⁾
 - 품목별로는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선박(139.8), 반도체(125.2), 생활용품(123.5) 등의 수출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지정학적 긴장 유지 및 각국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석유제품(71.8),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81.4), 섬유·의복제품(92.1) 부문은 수출 경기 악화를 전망
 -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용 상승 등이 지난 분기 대비 응답비율이 상승하며 수출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힌 가운데, 지난해와 달리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 등을 우려하는 응답은 감소

9) 산업연구원(2024.05)의 전망치. 한국은행(2024.05)은 2024년 수출 증가율을 5.1%, 현대경제연구원(2024.06)은 9.3%로 전망.

10) 현대경제연구원(2024.05),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4.06), 산업연구원(2024.05) 등 참고.

1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4.0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4.06)

* 주 : 100 이상은 경기개선 전망을, 100 미만은 경기 악화 전망을 의미

[그림 4] 분기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추이(2015-2024)

- 최근 인천시 수출은 7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하는 등 경기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 수출 산업의 위험을 회피·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 전략 재편이 필요
 - 인천시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반도체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 △미국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당분간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일부 개선되면서 수출액이 7~8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글로벌 IT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 수출은 하반기에도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
 - 그러나 △물류비용 상승 △중국 저가 수출 전략 △미-중 무역 갈등 등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산재해 있으므로, 리스크 현실화 시 지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주요 수입국에서의 현지 생산 증가로 인해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자동차 부품이나 중국의 저가 수출품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철강, 반도체 등의 품목의 경우, △연구개발 △수출 △경영 등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 전략 재편이 요구
 - 인천이 타지역에 비교우위를 가지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및 수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이 필요
 - 또한 해외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외여건 변화 및 수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기업의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액

- **(서비스생산)** 2024년 1분기 전반적인 서비스업 생산 경기는 전국과 인천 모두 보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각 산업 부문별 생산 경기 편차가 확대
 - **(전국)** 1분기 전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5.8% 감소,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114.0 수준으로, 2021년부터 전년동기비 증가세가 지속
 - 인천(5.9%), 울산(2.8%), 광주(2.7%) 등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의 호조로 생산이 증가했으나, 세종(-3.9%), 제주(-3.0%), 충남(-2.4%)은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
 -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대체로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생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은 4분기 만에 감소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12.6%) △정보통신업(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순이며, △도·소매업(-3.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4%) △숙박 및 음식점업(-1.8%)은 4분기 연속 전년동기비 감소
 - **(인천)** 인천의 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1.6% 감소,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122.2 수준으로, 기준치를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13개 서비스 업종 중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6개 업종에서 전년동기대비 생산이 감소하며 전체 생산지수의 증가세가 둔화
 - 인천의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6.2%) △운수·창고업(21.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9%) 등의 부문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재료 재생업(-8.4%)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4%) △숙박·음식점업(-6.0%) 등의 경우 전년동기비 생산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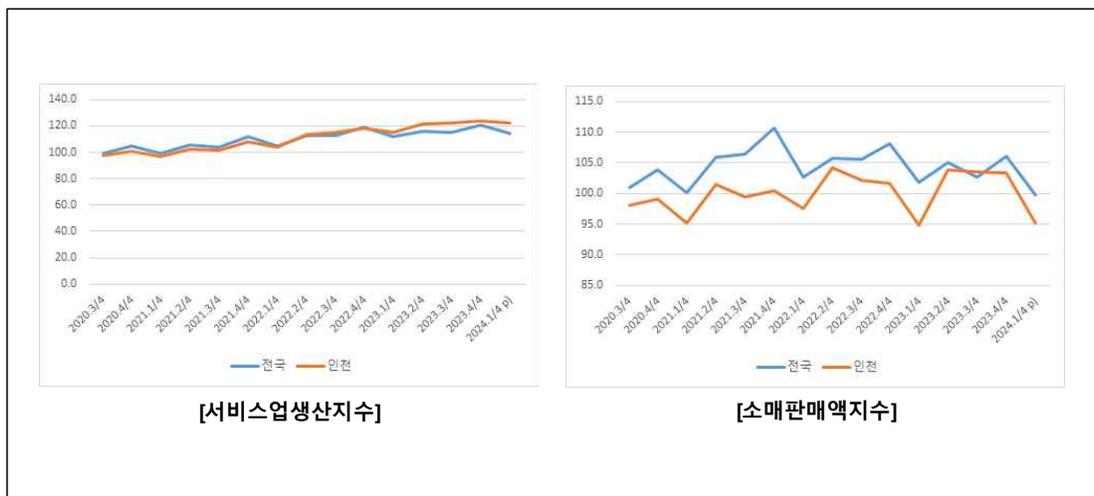
[표 1] 서비스업 주요 부문 생산지수

지역	항목	'23.3/4	'23.4/4	'24.1/4 (p)	'23.1/4	전기비	전년 동기비
전국	도매·소매업	103.8	108.6	102.4	106.5	-5.7%	-3.8%
	운수·창고업	144.9	146.5	142.7	126.7	-2.6%	12.6%
	숙박·음식점업	121.4	121.3	113.6	115.7	-6.3%	-1.8%
	금융·보험업	123.8	127.8	128.4	124.2	0.5%	3.4%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184.7	188.9	152.3	146.4	-19.4%	4.0%
인천	도매·소매업	109.1	111.7	108.1	106.9	-3.2%	1.1%
	운수·창고업	179.4	190.2	184.6	152.2	-2.9%	21.3%
	숙박·음식점업	108.5	107.3	98.6	104.9	-8.1%	-6.0%
	금융·보험업	112.9	111.4	113.1	112.5	1.5%	0.5%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362.7	238.8	339.3	182.2	42.1%	86.2%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비율(%)로 표기

2 : 각 자료는 산업별,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불변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및 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소매판매액지수의 전국자료는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의 불변지수를 사용

[그림 1] 서비스산업 동향 추이(2024년 1분기)

- **(소매판매)** 2024년 1분기 전국과 인천 소매판매액지수가 모두 기준치(100)를 밑도는 약세를 보이며 감소세 전환
 - **(전국)** 전국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5.8%,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99.8로, 코로나19 시작 시기인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하회
 - 2024년 1분기 전국 소매판매액지수는 17개 시도 중 △인천(0.4%) △세종(0.1%)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
 - 전년동기비 소매판매 감소 지역은 △울산(-6.8%) △경기(-5.5%) △전북(-5.3%) 등의 순으로, 승용차·연료소매점과 전문소매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소매판매가 감소
 - **(인천)** 1분기 인천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7.8% 감소,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한 95.2로, 소매판매 회복세가 둔화하여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 면세점을 제외한 모든 소매업종의 판매가 전기대비 감소했으나, △대형마트(11.6%) △면세점(56.7%) △전문소매점(1.6%)의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여 소매판매 경기가 지난해 1분기 대비 소폭 개선
 - 인천시 소매판매지수의 경우 2020년 이후 95~105 수준의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표 2] 전국 및 인천 업종별 소매판매액지수

지역	항목	'23.3/4	'23.4/4	'24.1/4 (p)	'23.1/4	전기비	전년 동기비
전국	백화점	126.6	145.7	128.8	127.7	-11.6%	0.9%
	대형마트	102.3	94.7	95.6	93.0	1.0%	2.8%
	면세점	78.6	86.6	83.9	70.8	-3.1%	18.5%
	슈퍼마켓 및 잡화점	94.8	86.2	84.0	88.2	-2.6%	-4.8%
	편의점	110.3	102.2	94.7	94.4	-7.3%	0.3%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100.1	108.9	96.7	101.9	-11.2%	-5.1%
	전문소매점	98.8	102.1	96.5	103.2	-5.5%	-6.5%
	무점포소매	111.4	119.0	115.9	111.6	-2.6%	3.9%
인천	대형마트	102.7	99.2	97.1	87.0	-2.1%	11.6%
	면세점	235.6	245.8	266.7	170.2	8.5%	56.7%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95.7	87.7	83.5	86.2	-4.8%	-3.1%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98.7	99.7	82.5	91.2	-17.3%	-9.5%
	전문소매점	101.2	102.2	98.1	96.6	-4.0%	1.6%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 : 각 자료는 시도별,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중 불변지수를 사용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4.05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01,959	4.0	174,160	28.1	72,202	18,443	53.6	19,990	17.7	1,548
자동차	18,692	-8.7	80,892	1.6	62,201	1,383	1.4	7,063	0.8	5,680
기계장비	52,117	-12.4	66,583	18.1	14,466	5,632	28.1	4,759	-8.1	-873
바이오-의약	7,771	-2.6	6,775	41.3	-997	1,267	45.5	4,775	49.7	3,508
바이오-화장품	1,731	2.1	8,519	13.5	6,789	24	1.0	1,548	16.7	1,524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산업 > 정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기획재정부

- 정부는 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국내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및 졸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
 - 금번 방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도입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등 4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

분야	주요 내용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법령상 중소기업 인정 및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 연장(3년→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 • 졸업 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점검 구조 도입 및 지원사업 연계 우대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중소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 100개사 선정 후 △스케일업 전략 △네트워킹 △성장바우처 △재정사업 우대 등의 지원을 통해 3년간 밀착관리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확보·기술 혁신·인력 공급 등 기업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수출기업의 자금 및 판로와 유망 중소기업의 M&A·가업승계를 지원 제도 확대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 통합포털 구축을 통해 기술평가·재무정보·중소기업 지원·중견기업 혜택 등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교육 > 교육부, '25년도 대학 입학전형 확정에 따른 맞춤형 입시정보 제공


#교육부

-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확대
 - 교육부는 대학입시 수시모집과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및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TV'를 통해 배포할 계획
 - 또한 6월부터는 권역별 및 학교 단위 대입 설명회, 수시 박람회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에게 맞춤형 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이에 더해 대입 상담에 전문성을 보유한 현직 고교 교원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전화(1600-1615) 및 온라인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수시 원서접수 전 2주(8월 3주~5주)와 정시 원서접수 전 2주(12월 4주~1월 1주)에는 대입 상담 중점기간을 운영할 계획

금융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과거 이용내역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금융위원회

- 오는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되어 적용될 예정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상품구조를 '급여' 및 '비급여'로 분류하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그간 비급여 보험료 손해율의 통계 확보를 위해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이 유예
 - 차등 적용 유예기간 일몰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갱신되는 보험부터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어 보험료의 할인·할증이 적용 예정
 - 단,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는 금번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
 - 각 보험회사는 보험료 변동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으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보험료 할증 단계·제외신청 필요 서류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

구분	1등급(할인)	2등급(유지)	3등급(할증)	4등급(할증)	5등급(할증)
할인·할증률	-5%(잠정)	-	+100%	+200%	+300%
직전 1년 비급여수령액	보험금 無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대상 건수 비율	62.1%	36.6%	1.3%		

주거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시행 +

#행정안전부

- 지난 6월 11일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주소 정보 불명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금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 전입신고 시 주소지를 상세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주민등록 규정을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구분	현행	개정
다가구주택·준주택 동·호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기록 • 전입자 신청 시 건축물 이름, 동·호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이름, 동·호수까지 기록 • 동·호수 없을 시 층수까지 기록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완료 외국국적동포는 직접 발급 가능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제한 신청자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

- 지능형 반도체 분야 4단계 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추가 선정 결과 △가천대 △세종대 △인하대 등 3개교가 예비 선정되었으며, 교육부는 오는 7월 최종 선정이 확정되면 동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참여 연구단 13개에 매년 총 10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
 - 4단계 BK21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년 9월부터 '27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
 - 4단계 BK21은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금번 사업 대상 선정은 신산업 분야인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기존 10개교에 더해 3개교를 추가 선정
 - 교육부는 지난 4월 사업 공모에 참여한 6개 연구단 중 교육·연구 역량, 산·학 협력체계 등을 평가하여 △가천대(재로-소자-회로-응용 통합형 반도체) △세종대(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하대(칩렛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를 예비 선정하였으며, 오는 7월 중 사업 참여 연구단을 최종확정 할 계획
 - 금번 최종 선정되는 교육연구단은 2027년까지 매년 평균 약 8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편성, 해외 석학 초빙 및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

#국토교통부

-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발굴한 비합리적인 주거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및 주거 관련 규제의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
 -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민간임대리츠 규제 완화 △대도보상 활성화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법령·규제의 기준을 재정비할 예정
 - 재건축·재개발·소규모정비·도심복합사업 등과 관련한 제도 유연화, 민간임대리츠 관련 공사비 조정·승계·시공사 요건 등의 규제 완화, 토지에 대한 대도보상 범위 확장 등을 통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
 - 또한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제도 합리화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공공주택 공급·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주거복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
 -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청약제도 다양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과 주거환경 여건에 맞게 청약통장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청약 월납입 한도를 상향하고, 나눔형·기숙사형 등 공공주택 운영 규정을 개선
 - 또한 임대보증 및 전세반환보증 관련 가입 기준 강화 및 세부 기준 구체화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소상공인*과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의 2차 공모가 오는 7월 2일까지 진행 예정
 -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의미
 -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해 방통위와 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57개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을 지원할 계획
 - 금번 공모는 6월 14일(금)부터 7월 2일(화) 오후 6시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금번 2차 공모에서는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추가로 지역과 관계없이 평가점수순으로 21개사를 선정하여 총 77개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할 예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자사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송광고 전문가로부터의 광고 기획·제작·송출 등 마케팅 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 정부가 최근의 해상물류 운임비 상승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발표
 - 금번 대책은 주요 수출입 무역로의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하여 수출입 물류 운송로가 변동됨에 따라, 물류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지원 구분	주요 내용
국적선사(HMM) 추가 선박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 · 7월~11월 중 미국 서안(13K 컨테이너선 5척) 및 동남아(1.8K 컨테이너선 2척) 항로 등 주요 노선에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총 7척 투입 계획 · 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공급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 추진
운임비 경감 및 유동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하반기 수출 바우처 202억 원 조기 집행 및 추가 지원방안 검토 ·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우대 및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지원 대상 및 시행 시기 확대 · 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저렴한 비용의 컨테이너 공용장차장 700TEU 규모를 추가
수출입 비상대응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 애로 발굴·해소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무역협회 내 정보제공·애로 접수 창구 운영

참고 자료

- UNCTAD, 「GLOBAL TRADE UPDATE - MARCH 2024」, 2024.03.
- WTO,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2024.04.
- 한국수출입은행, 「2024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2024.05.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4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TRADE FOCUS 2024년 12호, 2024.03.21.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4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TRADE FOCUS 2024년 25호, 2024.06.18.
- 국제금융센터, 「한국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 2024.05.21.
- 산업연구원,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2024.05.30.
- 현대경제연구원, 「수출 경기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 -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과 전망, 현안과 과제」, 2024.05.24.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수정) - 2024년 경제성장률, 0.5%p 상향조정한 2.7%」, 경제주평, 2024.06.05.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소나기인가 장마인가?」, 2024.06.07.
- 한국은행, 「2024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2024.05.15.
-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금융브리프포커스」, 2024.05.11.
- 한국은행 인천본부, 「최근 인천지역 실물경제동향」, 2024.06.05.
- 한국은행, 「경제전망(Indigo Book)」, 2024.05.
- 통계청, 「분기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2023년 3/4분기)」, 2023.11.09.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뉘준다…세제혜택 연장」, 기획재정부, 2024.06.03.
- 기획재정부, 「중소→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만든다」, 2024.06.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달라진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여기서' 알려드려요」, 교육부, 2024.06.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금융위원회, 2024.06.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복지위기가구 발굴, 행정안전부, 2024.06.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BK21 '지능형 반도체' 교육연구단 3곳 추가 예비 선정」, 교육부, 2024.06.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국토교통부, 2024.06.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최대 900만 원」, 방송통신위원회, 2024.06.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주요 노선에 선박 7척 투입」,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2024.06.14.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2호(2024.06.21)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06월 21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